

# 레닌의 『帝國主義論』과 마르크스主義

呂 井 東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차

례>

I. 序 論

II. 마르크스主義의 帝國主義論의  
起源

III. 레닌의 『帝國主義論』

IV. 檢證——레닌의 『帝國主義  
論』의 誤謬

## I. 序 論

일반적으로 共產主義理念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呼稱이라고 생각된다. 共產主義理念은 마르크스의 世界觀과 그 世界觀에 입각한 레닌의 政治行動原則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主義의 내용은 마르크스主義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마르크스主義를 완성시킨 것은 獨占資本主義(帝國主義) 이전의 시기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반하여 레닌主義가 멀친 것은 帝國主義가 발전하고 있는 시기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전개되는 시기였다는 시대적인 차이 뿐이다.

레닌은 마르크스主義를 眞理로 생각하여 그것을 再檢討하려 하지도 않았고 批判하려 하지도 않았다. 레닌은, 기본적인 理論은 마르크스가 이미 定立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實踐的인 政治行動에 관한 問題點에 전념하였을 뿐이다. 스탈린이 評한 바 있듯이 레닌은 마르크스主義에 어떠한 새로운 教理를 첨가한 것도 없고 동시에 마르크스主義의 諸原則 중 어느 것 하나 버린 것도 없으며, 레닌主義란 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革命時代의 마르크스主義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理論과 戰術이며 특히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理論과 戰術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하겠다.

레닌의 著書는 많지만 그 중에서 5大著書로 손꼽히는 것은 ①『무엇을 해

야 하나?』(1902) ②『民主革命에 있어서 社會民主主義의 두 戰術』(1905) ③『帝國主義：資本主義의 最高段階』(1916) ④『國家와 革命』(1919) ⑤『左派共產主義：小兒病』(1902)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02년 3월 출판한 그 유명한『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小著는 뒷날 레닌主義라고 불리우는 政治와 黨組織에 관한 理論을 일찌기 제일 잘 提示해 주었고 또한 레닌主義를 만들어 내는 결정적인 契機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 小著에서 레닌은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黨鬪爭은 黨에 힘과 생명을 준다. 黨은 자신을 숙청함에 의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구절을 러시아 社會民主黨의 團結과 統一을 위한 行動綱領으로 採擇하였다. 이때의 團結과 統一이라는 것은 中央統制的인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프롤레타리아는 全國民의 育자리에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國際革命的 프롤레타리아의 前衛隊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際프롤레타리아의 前衛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1917년의 블세비키革命뿐만 아니라 코민테른의 창립을 고무하는 개념의 쌍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小著는 마르크스主義의 政治와 社會主義政黨組織의 條件과 本質에 관한 레닌의 思想과 戰略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資料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總括컨대 레닌은 마르크스主義政黨이 러시아의 專制君主制를 打倒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國際的 水準으로까지 擴大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實踐論을 주장하면서도 마르크스의 社會哲學, 歷史哲學, 階級鬪爭理論에 관해서는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하면서 條件과 戰略과 戰術에 관한 問題를 수 없이 제기하여 이들이 마르크스主義理論이나 前提에 부합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問題를 해결하려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어떠한 變容論議도 완강히 거부하는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理論인 것이다. 레닌의 主著『帝國主義：資本主義의 最高段階』(이하『帝國主義論』이라고 호칭함)도 그例外가 아니다.

레닌의『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主義의 어떠한 變容論議도 아니고 그것은 단지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的 課題를 支撐하려는 時代的 役務를 延 戰略理論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帝國主義論』은 마르크시스트理論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이라고 호칭되는 것이다. 즉 레닌이 帝國主義라는 用語를 사용하는 理論自體가 마르크시스트的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時代는 많이 바뀌어 資本主義와 帝國主義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 특히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다른 견해가 피력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어떠한 破格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主義에 대해서 새로운 照明을 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視角에서 새로운 論義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理論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대해서 새로운 照明을 해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II. 마르크스主義的 帝國主義論의 起源

帝國主義는 對外膨脹의 政策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政策을 유발하는 政治的 經濟的 體制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支配나 摧取를 正當화 또는 罷倒하기 위한 人種觀 價值觀 信念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先進強大國(中心國)과 第3世界(周邊國)간의 관계를 帝國主義라는 개념으로 說明하기도 한다.

解釋이나 理論의 차이 여하를 막론하고 帝國主義는 일반적으로 賞讃이나 福音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비난이나 罷倒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1874년 디스렐리가 保守黨 選舉綱領으로 「帝國聯合」(Imperial Federation)이라는 新基調를 제창한 이래 1898년까지 잠깐동안 英國의 與論이 帝國主義라는 용어를 英國民的 福音으로 생각했던 것은例外的인 일이다.

帝國主義란 말이 古代 이집트, 페르시아, 앗시리아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帝國이 世界制霸를 꿈꾸고 있었던 당시도 없었다. 오히려 이 말의 기원은 19世紀 중엽 도버 海峽의 건너편에서建設한 루이·나폴레옹의 부르조아帝國을 선망의 標的으로 생각하면서 英國인이 호칭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Koebner and Schmidt, 1964). 특히 루이·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성립시킨 第2帝政期(1852~1870)는 그의 獨裁權下에서 金融 產業主義를 강화하고 產業發展을 위한 자원획득을 목표로 植民地膨脹을 위한 軍事的 冒險을 감행했던 시기다. 그가 세당에서 1870년 9월 프러시아軍隊에 불잡힐 때까지 프랑스 本土의 3倍나 되는 植民地를 획득한 것을 바다 건너편에서 본 英國人은 그 프랑스政體를 가르켜 보나파르트帝國主義라고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그 후 영국에서는 보나파르티즘과 帝國主義를 同意語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루이·나폴레옹의 強力한 金融政策과 海外膨脹政策을 英國 사람들은 帝國主義라고 비난했지만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급기야 1874년에는 保守黨 大政客인 디스렐리가 帝國과 自由는 併存할 수 있다는 결지에서 諸植民地를 保護關稅와 共同防衛에 의해서 統一的 帝國으로 形成해야만 한다면서, 「帝國聯合」이라는 新基調를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라하여 帝國主義라는 用語가 1870, 1880, 1890년대에 膨脹하던 英國과 그 植民地와의 유대를 強化하기 위해서 英國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70년대에는 Disraeli와 Carnarvon과 같은 사람이, 1880년대에는 自由主義의 帝國主義者들이, 1890년대에는 Chamberlain, Rhodes, Hewins 같은 사람이 열심히 사용했으며, 그 외에도 Froude, Seeley, Tennyson, Kipling과 같은 歷史家나 作家들과 小數의 勞動組合運動者들과 Torrens와 같은 植民主義者集團 등이 帝國主義라는 용어를 열심히 사용하였다(Bodelsen, 1960).

디스렐리가 사용하는 帝國主義라는 用語는 그의 反對派로부터 일시적으로 黨派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870년, 1880년, 1890년대에 대체로 많은 영국사람들은 英帝國과 自由가 併存하는 復權慾이 강하여 1898년까지는 自由黨에 속하는 많은 人士들까지도 帝國主義者임을 자처하여 帝國主義라는 用語를 駕倒의 대상이 아니라 國民的 福音으로 여겼던 것이다(Koebner and Schmidt, 1964).

그러나 보어戰爭(Boer War: 1899~1902)의 결과로 派生된 英國民의 轉變로 國民的 福音이라고 생각했던 帝國主義라는 用語는 非難과 駕倒의 對象으로 바뀌었다. 보어戰爭은 英國民으로 하여금 英帝國主義에 대한 動機와 解釋에 새로운 契機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이에 대한 代表的인 論客이 J. A. 흉슨이다. 흉슨이 1902년 그의 力著『帝國主義論』을 出刊함으로써 지난 날 英國 사람들이 福音으로 생각했던 帝國主義의 의미는 완전히 전도되어 疑惑과 非難이 內在된 새로운 뜻으로 轉化되었다(Hobson, 1954).<sup>(1)</sup>

당초 帝國主義「理論」은 마르크시스트들이 고집하는 經濟的 解釋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르크시스트가 아닌 흉슨도 帝國主義의 經濟的 原因을 따지면서 帝國主義를 駕倒의 대상으로 몰아 부쳤다. 그리

(1) J.A. Hobson의 *Imperialism: A Study*는 1902년에 초판, 1905년에 개정본 2판 그리고 1938년에 전개정본이 나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帝國主義라는 用語의 기원을 살펴볼때 이는 마르크스 주의이론에서 嘴矢로 된 것이 아니며 마르크스·엥겔스의 저작에서도 이 용어는 사용된 일이 없었다. 제국주의에 관한 정리된 이론의 효시는 마르크시스트가 아닌 흡순이 아닌가 한다.

흡순은 植民主義와 帝國主義를 구별하면서, 植民主義는 民族의 일부가 사람이 전혀 살지도 않거나 회박한 外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하며, 제국주의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또 同化되려 하지도 않고 他民族을 强制로支配하는 墜落된 형태의 민족주의라고 하여 제국주의를 駁倒하면서 아프리카의 정복이 英國의 失業問題解決과 交易增大에 기여한다는 Rhodes의 주장을批判하면서 帝國主義의 경제적 原因을 철저히 파지고 있다(Hobson, 1954:6). 흡순은 레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레닌은 그의 著書『帝國主義論』序文에서 “帝國主義에 관한 英文의 중요한 力作 즉 흡순의 著書를 주의깊게 이용하였다. 흡순의 力作을 이용한 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Lenin, 1950: vii)고 말하였듯이 흡순은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영향을 준 바 컸지만 흡순은 마르크시스트가 아니었다. 마르크시스트가 아니지만 흡순도 마르크시스트와 같이 帝國主義를 철저히 經濟的으로 분석하였다.

레닌 이전에 帝國主義問題를 마르크시스트의 方法으로 分析한 대표적인 사람은 힐퍼딩(R. Hilferding)과 루셈부르크(Rosa Luxemburg)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資本主義의 經濟體制모델에 대한 마르크스의 理論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의 經濟體制모델의 要諦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M—C—M모델에 있다(Brown, 1972). 즉 資本(Money)의 소유자가 이 資本을 商品(Commodities)으로 변화시켜 資本(Money)을 얻는다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本質的인 特性 중의 하나는 새로운 資本을 획득하기 위하여 私有企業들이 競爭한다는 사실이며 각 企業도 새로운 資本이나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해서 새로운 設備에 끊임없이 投資해야 하고 또 設備投資를 가능하게 하려면 大量生產의 經濟性을 얻기 위해서商品市場을 擴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大衆窮乏化理論에서 연역되는 剩餘資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投資機會를 無條件的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가『資本論』에서 資本主義社會에서는 “한쪽에서(資本家)의 富가 축적되면 다른 쪽에서(勞動者)의 不幸, 勞役의 苦痛, 隸屬, 無知, 殘忍, 知的 葛藤 등이 증가한다”(Marx, 재인용, Brown, 1972:20)고 말한

바와 관련된다.

이상이 마르크스經濟體制모델의 要諦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시스트들이 (이를테면 힐퍼딩이나 룩셈부르크 등) 19世紀의 國際關係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說明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經濟體制모델을 採用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採用하여 帝國主義를 分析한 마르크시스트, 특히 힐퍼딩과 룩셈부르크의 理論을 資見해 보기로 한다.

힐퍼딩은 마르크시스트 중 帝國主義를 주변적 상황이 아닌 本格的 主體로서 취급한 최초의 인물인데 그의 이론은 『金融資本論(Das Finanz Kapital)』에 잘 나타나 있다.

힐퍼딩은, 生產規模가 커짐에 따라 또 巨大한 資本家의 세력이 그들의 資本所有限界를 넘어섬에 따라서 야기되는 資本의 集中化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強調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였다. 힐퍼딩은 당시 美國과 獨逸에서 產業資本을 장악하는 데 主導的 役割을 하던 銀行의 機能에 착안하여 이를概念化시켰고 金融資本과 產業資本의 融合現象에 주의를 기울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힐퍼딩의 要點은 國際市場에서의 資本의 獨占的 位置는 國家의 保護政策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이것이 海外로 膨脹한다는 것이다. 힐퍼딩은 『金融資本論』에서 “종전에는 保護關稅政策이란 國內의 產業發展을 촉진시키는 役割을 하였다. ……그러나 國家支援體制가 발전하면서 保護關稅政策은 완전히 機能이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正反對의 기능을 행사하게 되었다. 他國에 의한 國內市場의 鑽食을 막기 위한 防禦的 手段에서 이제는 海外市場을 征服하기 위한 攻擊的 手段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弱者를 保護하기 위한 武器로부터 強者들의 공격을 위한 武器로 变질하였다”(Hilferding, 재인용, Brown, 1972:27)고 말하고 또한 “金融資本은 자신의 利益을 위해서도 認定 받음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弱小國을 政治的으로 强制하여 유리한 조건의 條約을 확보해 주며 全世界를 자신의 投資對象地域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위해 影響力を 행사할 能力を 지닌 強力한 國家를 필요로 한다. 窮極의 으로 金融資本은 膨脹政策을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植民地를 획득할 能력이 있는 강력한 國家를 요구한다”(Hilferding, 재인용, Brown, 1972:28)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힐퍼딩은 世界各國의 獨占資本家들은 그들끼리 카르텔協定을 맺어서 談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協定은 不安한 休戰에 지나지 않을 뿐 한 국가라도 자신의 위치를 強化시킬 機會를 포착하면 금방 白

紙化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體制를 갖는 強大國들간의 經濟的 競爭은 必然的으로 戰爭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힐퍼딩의 帝國主義論의 要諦인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閉鎖된 資本主義體制內에서는 投資增加에 비례하는 消費增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資本蓄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命題를 기저로 하여 資本主義社會의 資本蓄積은 非資本主義的 地域을 흡수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帝國主義論의 要諦다. 그녀의 帝國主義理論은 『資本蓄積論』에 잘 나타나 있다(Luxemburg, 1951). 그녀의 帝國主義論은 非마르크시스트는 물론 마르크시스트로부터도 否定되기도 하고 非難받기도 한다. 룩셈부르크理論의 잘못은 그녀가 國民經濟나 世界經濟를 自動的으로 調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간주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마르크스時代에는 국가가 거의 經濟에介入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마르크스가 國家經濟나 世界經濟를 自動調節機能의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이해가 있지만 룩셈부르크時代는 이미 國家가 적극적으로 經濟介入을 論하고 있었던 때이니 國家經濟나 世界經濟의 自動調節的 機能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치 않는다. 이미 힐퍼딩도 국가의 적극적인 經濟介入을 論하고 있지 않았는가? 룩셈부르크가 國家의 經濟介入 및 經濟運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資本主義經濟內에서는 危機的 性向이 內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의의있는 일이었다고는 하나 그녀의 잘못은 資本主義體制崩壞의 必然性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機械的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룩셈부르크의 核心的인 思想이다. 그녀는 民族主義가 反社會主義의 세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Nettle, 1966: Vol. II). 그녀가 民族主義의 色彩가 깊은 각국의 經濟的 競爭이 戰爭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기한 점에서는 힐퍼딩과 다름이 없다. 다만 힐퍼딩은 被擯取殖民地人们的 革命的 잠재력을 믿었으나 룩셈부르크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흡수과 마찬가지로 被殖民地人们이 社會主義的 意識보다는 民族主義的 意識에 고무되었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룩셈부르크는 흡수과는 달리 被殖民地의 民族意識 底邊에 社會主義的 意識이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믿기는 하였다. 그녀에게 있어서 社會主義란 民族國家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民族國家라는 것이 資本主義의 本質的인 政治形態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Brown, 1972).

지금까지 마르크스主義의 帝國主義論의 起源으로서 힐퍼딩과 루셈부르크의 理論을 該見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마르크스가 개발한 M—C—M모델을 기저로 하고 있으나 論理展開가 마르크스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마르크스主義의 諸原理에 대한 어떠한 變容論議도 완강히 拒否하면서 마르크스의 世界觀을 添削이나 批判 없이 송두리째 受容하면서 政治實踐의 帝國主義理論을 전개한 사람은 다름아닌 레닌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닌은 힐퍼딩이나 루셈부르크와는 對照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레닌의 『帝國主義論』

레닌은 帝國主義와 관련된 論文이나 著書를 많이 발표했지만 그 代表作은 『帝國主義論』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당시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파루스出版社가 계획한 『戰前 및 戰時의 유럽』이라는叢書 중 한권으로 계획된 것이다. 『帝國主義論』은 그가 亡命生活을 하고 있었던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1916년 초 집필하여 6월 말에 脱稿하여 7월 초 페트로그라드의 파루스出版社에 보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곧 出版되지 못하고 짜리즘이 崩壞된 연후인 1917년 4월에야 비로소 러시아版으로 출간되었다. 佛語版과 獨語版은 1920년에 나왔다. 그래서 序文은 『러시아版序文』과 『佛語版獨語版序文』 두 가지가 있다.

레닌 자신이 『佛語版獨語版序文』에서 말한 표현을 빌리면 이 책은 “1914 ~ 18년의 戰爭(第1次大戰)은 어느 편에서든 帝國主義戰爭(즉 侵略的掠奪的戰爭)이며, 世界分割을 위한 戰爭이며, 植民地의 分配 및 再分配를 위한 戰爭이며, 金融資本의 勢力圈擴張을 위한 戰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計劃되었다고 한다(Lenin, 1950:11). 이는 第1次大戰에 당면한 各國共產黨은 反戰活動과 反戰態度를 취하는 것만이 「修正的 마르크시즘」에 대처할 수 있는 「革命的 마르크스主義」가 할 바라는 것을 力說한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시투트가르트 大會에서 절박한 世界大戰에 대한 反對決議를 하였고 이를 1912년 바젤大會에서 再確認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陣營내에서는 카우츠키와 같은, 影響力を 무시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大會決議를 反對하면서 戰爭支持로 전향하였다. 막상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交戰國의 社會主義政黨들은 戰爭沮止를 위한 共同鬪爭을 하기는 커녕

대부분이 自國의 戰爭遂行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沪狀에 대한 對備策을 제시하려는 것이 바로 레닌의 『帝國主義論』인 것이다.

레닌은 “本書에서 힘들인 특별한 의도는 카우츠키에 대한 批判 즉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 2 인터내셔널의 가장 卓越한 理論家이며 指導者——오스트리아에서는 Otto Bauer와 그의 同調者, 英國에서는 R. MacDonald 등, 프랑스에서는 Albert Thomas 등——와 무수한 社會主義者, 改良主義者, 平和主義者, 부르조아民主主義者 및 僧侶 등이 대표하고 있는 國際이데올로기적 사조에 대한 批判을 하려는 데 있고 또 전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롤레타리아 革命運動 특히 共產主義運動은 카우츠키主義의 이론적 誤謬를 폭로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Lenin, 1950:15). 그런데 상황은 어떠한가? 레닌은 말하기를 “資本主義는 소수의 先進諸國이 植民的으로 壓制하고 金融的으로 얹어매어 놓은 全世界的 體制로 성장했다.……富強한 몇 나라가 全世界를 掠奪하고…… 이 掠奪에서 얻는 超過利潤으로……勞動者의 指導者와 勞動貴族의 上層部를 買收하는 體制로 成長하였다”(Lenin, 1950: 17~18)라고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고 본 레닌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事態에 對處할 수 있는 實踐的 課題와 革命的 마르크스主義理論에 대한 解明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資本主義列強이 어떠한 계책을 試圖하든 그에 對處하기 위해서 레닌은 交戰各國의 社會主義者들을 규합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反戰運動을 組織化하려는 實踐的 課題와, 그러한 實踐的 課題를 지탱할 수 있는 「帝國主義戰爭의 理論的 性格」을 밝힐 수 있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科學的 解明이라는 두 가지 課題에 적면하여 『帝國主義論』을 펴낸 것이다.

레닌은 帝國主義를 자본주의의 현상형태로 파악하고 帝國主義의 崩壞는 곧 資本主義 그 자체의 崩壞인 동시에 그것은 社會主義革命前夜의 史的 段階로 파악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레닌은 帝國主義를 「政策」으로 이해하지 않고 資本主義의 最高段階인 獨占資本主義「段階」로 이해하는 것이다.

國家權力を 擴張하기 위한 植民地政策이나 軍國主義政策을 帝國主義라고 하는 「政策」으로서의 帝國主義論을 주장한다면 마르크스·레닌主義가 표방하는 反帝鬪爭은 資本主義內容의 政策變更의 領域에만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政策」으로서의 帝國主義論을 철저히 배격한 것 같다. 말하자면 必然的

인 資本主義崩壞論, 즉 菲연적인 社會主義革命論을 주장하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를 兩者擇一의인 國內政策이라고 보는 흡수의 自由主義的 帝國主義理論을 배격함은 물론 金融資本一般의 政策이라고 이해하는 힐퍼딩이나 支配 被支配와 같은 政策的 結果로 해석하는 카우츠키의 견해도 배격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의 骨格은 다섯 가지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과 세 가지의 特殊한 歷史的 地位로 구성되어 있다:

基本的 經濟構造의 다섯 가지 標識은 다음과 같다.

첫째：生產과 資本의 집중으로 獨占의 발생 (Lenin, 1950:21~44) —— 資本主義의 内在的 本性인 競爭의 결과가 生產과 資本을 高度로 집중시키게 되어 獨占을 발생케 하는데 이 獨占은 經濟生活에서 결정적 役割을 담당한다. 이 점이 信用을 基軸으로 하여 獨占論을 전개한 힐퍼딩의 이론과는 다르다.

둘째：銀行資本과 產業資本이 혼합되어 金融資本을 기반으로 한 金融寡頭制의 발생 (Lenin, 1950:45~97) —— 이 標識은 첫째 標識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信用의 役割을 補完하여, 信用을 中核으로 하는 銀行業의 집중이 진행되어 獨占銀行으로 전화하는 것은 生產과 資本의 집중으로 獨占이 成立되는 것과 表裏一體關係가 있다고 레닌은 간파하므로, 이 점이 生產의 집중은 고려하지 않고 銀行中心主義만을 생각하는 힐퍼딩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金融資本이란 銀行資本이 產業資本을 支配하는 바의 資本”이라고 규정하는 힐퍼딩의 定義는 不完全하다고 하면서 “힐퍼딩의 定義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要因 말하자면 生產과 資本의 集中이 獨占으로 移行되는 점을 소홀히 하였다”고 한다 (Lenin, 1950:73~74). 또한 그는 “生Production과 資本의 集中, 集中으로부터 생기는 獨占, 銀行과 產業과의 融合 또는 癱着 등이 金融資本을 발생케 한 歷史이며 金融資本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商品生產과 私有財產의 일 반 적인 상황 하에서는 獨占資本家의 企業作用은 必然的으로 金融寡頭制를 발생케 한다”고 한다 (Lenin, 1950:74).

셋째：商品輸出과는 다른 중요한 意의를 갖는 資本輸出 (Lenin, 1950:98~106) —— 레닌은 “自由競爭의 舊資本主義의 典型性은 商品輸出이었으나 獨占이 支配하는 資本主義의 最高段階의 典型性은 資本輸出” (Lenin, 1950:98)이라고 하면서 그 例로서 英國, 獨逸, 프랑스, 美國 등의 先進國은 獨占段階

에 접어들자 巨大한 資本蓄積이 생겨 過剩資本은 높은 利潤率과 利子率이 적용되는 植民地나 從屬國에 輸出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나 資本輸出은 둘째의 標識인 金融資本의 支配問題와 관련해서 파악한다. 이 資本輸出의 標識은 帝國主義의 國際的 基礎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標識인 것이다.

넷째：獨占資本家들끼리의 聯合과 그들의 世界經濟 分割(Lenin, 1950: 107~121)——레닌은 “資本輸出이 증가하고 大獨占體의 影響圈과 對外的殖民地關係가 전면적으로 擴大됨으로써 獨占體間의 國際的 協定과 카르텔의 形成은 불가피하며 이것은 資本과 生產과의 新段階”(Lenin, 1950:107)라고 하면서 “最高段階로서의 資本主義時代에는 世界의 經濟的 分割을 바탕으로 하는 資本家團體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아가서 世界의 領土分割과 殖民地에 대한 戰爭과 經濟的 領域에 대한 戰爭 등을 유발케 하는 國家 및 政治的團體間의 相互關係가 형성된다”(Lenin, 1950:121)고 한다. 國際的 獨占體의 형성은 資本主義諸國間의 發展의 不均等性으로 말미암아 武力戰이 菲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우츠키의 超帝國主義論의 견해는 매우 非現實的이며 虛妄하다고 레닌은 생각하는 것이다(Lenin, 1950:119~120).

다섯째：資本主義의 列強에 의한 世界領土分割의 完了(殖民地分割의 完了)(Lenin, 1950:122~140)——레닌은 六大強國(英國, 러시아, 프랑스, 獨逸, 美國, 日本)이 1876년부터 1914년까지 取得한 殖民地獲得에 대한 자료를 圖表로서 제시하고 殖民地의 移轉 및 殖民地의 再分割問題를 중점적으로 分析하여,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으로 帝國主義世界의 内部的 矛盾은 顯在化되어 世界列強들의 領土 再分割을 위한 戰爭은 不可避함을 示唆하고 있다 (Lenin, 1950:12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다섯 가지의 標識을 特質로 하는 帝國主義은 資本主義의 特殊한 歷史的 段階인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 규정되므로 이것이 레닌이 말하는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가 설정되는 所以인 것이다.

세 가지의 特殊한 歷史的 地位는 다음과 같다.

첫째：帝國主義은 獨占資本主義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근본적인 經濟의 기초를 獨占資本主義로 파악하고, 獨占은 資本主義로부터 발생하며 또 資本主義와 必需品生產과 競爭의一般的 環境과 이러한 일반적 환경에 대한 永久의이고 深化되는 矛盾 속에 存在한다고 한다(Lenin, 1950:160). 獨占資本

主義는 資本主義의 最後段階를 의미하는 것이고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移行되는 過渡的 段階 즉 社會主義革命 前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帝國主義는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다 ——레닌은 獨占體는 일반적으로 높은 價格과 利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여러가지 商品의 生산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技術上의 진보를 應用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따라서 生產力의 발전은 阻止되고 資本主義는 停滯되고 腐敗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Lenin, 1950:160~161). 寄生性에 대해서는, 帝國主義國家에 사는 老大한 資本家層은 有價證券을 가지고서 이로부터 생기는收入으로 生活하는 金利生活者로 되고, 國際的으로는 資本輸出의 결과 植民地와 從屬人民을 壓取하는 寄生的 金利生活者 國家가 되며 종국에는 高利貸國家와 다수의 債務國家와의 分裂이 특징적으로 된다고 한다(Lenin, 1950: Chap. VIII).

또한 레닌은 “金利生活者國家는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國家며 이들 國家는一般的으로는 社會的 政治的 條件에, 特殊의으로는 勞動者階級運動에 영향을 끼침이 틀림없다”(Lenin, 1950: 164~165)고 하여 資本主義의 寄生性과 腐敗를 政治社會의 측면에서 說明하고 있다. 政治社會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獨占資本主義國家는 腐敗와 寄生性의 經濟的 기초를 이루는 獨占的 高利潤의 收奪結果이며 勞動者의 指導層과 勞動貴族을 買收하는 經濟的 가능성을 발생케 하고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機會主義者를 培養하여 勞動運動을 일시적으로 分裂시키고 墮落시킨다고 한다.

셋째：帝國主義는 死滅하고 있는 資本主義다 ——金融資本에 의한 獨占的 高利潤의 收奪은 그 자체 否定的인 作用으로 勞動貴族과 機會主義者를 만들어 일시적으로는 資本主義의 死滅을 연장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帝國主義의 矛盾이 격화하면 할수록 金融資本은 그 獨占的 高利潤으로서 社會를 부문적으로 改良하고 機會主義者를 培養하여 勞動者階級의 革命的鬪爭의 弱化를 기도할 것이므로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 레닌은 “이러한 현상의 經濟的基盤을 이해함이 없이는, 또 이러한 현상의 政治的 社會的 의의를 評價함이 없이는 共產主義運動 또는 社會革命의 實踐的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一步도 전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Lenin, 1950:18). 그러면서 그는 政治社會의 측면에서의 寄生性과 腐敗現象이 과연 帝國主義의 矛盾을 永續的으로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를 제기하면서 그 解答으로서 “첫

째는 帝國主義段階에서는 獨占的 高利潤의 操作으로 機會主義者가 생기지만 그것은 점차로 煥熟하고 腐敗하여 부르조아政治와 굳건히 결탁되고 노동운동의 이익과는 근본적으로相反되어 상호간의鬪爭은 격화되기 마련인데 機會主義者的 기반은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도록 勞動運動에서 승리할 수는 없고 오히려 帝國主義의 矛盾은深化되어 가며, 둘째는 帝國主義에 대한鬪爭이 機會主義者에 대한鬪爭과 밀접히 병합되지 않는 한 帝國主義에 대한鬪爭은 하나의虛偽요空虛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Lenin, 1950: 204). 말하자면 機會主義者가 煥熟하고 帝國主義의 矛盾이深化되면 필수록 金融資本은 점점 機會主義를 補強하여 서로의融合을 피하려는必死의인 努력을 경주할 것이므로 機會主義를打破克服하는 것이 帝國主義를 止揚하고 새로운 社會主義를 수립할 수 있는 必須條件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은 帝國主義의 死滅性에 대한 根本規定을 獨占資本主義의 矛盾과 帝國主義에 대한鬪爭이라는 全面的 展開過程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歷史的 地位인 「獨占」은 經濟的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고 「寄生性과 腐敗」는 政治社會的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며 「死滅性」은 歷史的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들 歷史的 地位(獨占 寄生性과 腐敗, 死滅性)를 레닌은 必然의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自由主義의 帝國主義論者인 흡순이나 그의 추종자 이를테면 스트레이치(John Strachey, 1956)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흡순이나 스트레이치는 資本主義가 福祉國家化됨으로써 農業도 발전시키고 大衆의 生活水準도 향상시켜 帝國主義가 終焉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레닌이나 그의 追從者들은 西方 몇몇 國家에서 설사 福祉國家 같은 것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後進國을 摧取한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投資帝國主義論을 제창하면서 帝國主義의 特수한 歷史的 地位(獨占, 寄生性과 腐敗, 死滅性)는 必然의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디까지나 레닌은 흡순이나 스트레이치가 주장하는 福祉國家建立을 통한 帝國主義의 止揚論은 虛構라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列强들의 世界的 聯合으로 세계를 共同經營하는 超帝國主義論의 가능성을 論議한 카우츠키의 주장도 레닌은 虛構라고 하면서 그것은 “마르크시즘이 아닌 부르조아改革主義”라고 詰難한다.

홉슨이나 스트레이치의 福祉國家觀과 카우즈키의 超帝國主義觀도 虛構라고 하는 레닌의 주장은 그의『帝國主義論』특히 資本輸出論(投資帝國主義論)이 그 유명한「利潤率低下의 傾向」, 「大衆窮乏化說」,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의 法則」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레닌은 그의『帝國主義論』에서「利潤率低下의 傾向」과「大衆窮乏化說」에 대해 明示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資本의 海外輸出과 연관시키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의 당연한前提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Hodgart, 1977: 34~35), 레닌은 國家干渉으로 大衆窮乏化傾向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즈의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레닌도 國家의 干渉을 전적으로 否定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생각한 국가간섭은 케인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스트레이치는 레닌의 생각의 正鵠을 다음과 같이 짤렸다. 즉, 레닌은“國家가 물론 干涉하겠지만 그 國家는 獨占資本家에 의해서 완전히 所有되고 統制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民衆의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干涉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고, 오히려 資本主義國家들의 목표인 最大利潤을 관철할 수 있도록 助力하기 위해서 干涉할 宿命에 처할 것이므로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國家干渉은 資本家의 利潤을 낳고 外國投資의 機會를 創出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결국 國家의 干涉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帝國主義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다는(Strachey, 1956: 104~105) 것이다.

이러한 지론을 가진 레닌이 그의 獨創的인 것으로 평가되는「자본주의 不均等發展의 法則」을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不均等發展의 法則」이란, 高度로 발달한 資本主義는 賃金勞動者와 農民에 의한 政治的 對抗行動(Counter Action)이 없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不均衡을 발전시켜 어떻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自動的인 復元調整力(Automatic, Self-righting, Self-adjusting Capacities)을喪失한다는 테마를 레닌式으로 말한 것인데 이러한「不均等發展의 法則」은 國內經濟構造 뿐만 아니라 國際經濟構造에서도 顯在化된다고 보는 것이다.

(2) 「이윤을 저하의 경향」과 「대중궁핍화설」은 Marx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의 법칙」은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레닌의 기여 중 가장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관해서는 Arrighi(1978:13)와 Cohen(1973:49)을 참조할 것.

레닌은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大企業擴大는 본질적으로 外的 膨脹傾向을 延(低開發地域에 대한) 帝國主義의 擴大로 되어 私的 利潤을 위한 資本主義의 蓄積의 全過程을 再現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消費材 交換으로부터 생기는 帝國主義의 誘惑보다는 資本材 輸出로부터 생기는 유혹이 훨씬 더한 것이므로 帝國主義는 低開發國에 대한 投資行爲와 밀접히 관계가 있다는데 착안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投資帝國主義論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레닌은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는 民衆(勞動者·農民)은 深化되는 窮乏化를 交涉하거나 沮止할 能力이 전혀 없으므로 民衆의 生活向上이나 國內에서의 市場擴大를 제공할 기회는 전무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巨大企業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海外志向의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低開發地域에 대한 投資行爲와 밀접히 연관되어 先後進國間에는 債權者와 債務者의 관계로 되어 債務者로 전락한 低開發地域에서 先進國은 投資에 대한 權利를 排他的으로 留保하고 결국은 그 지역을 植民地로 從屬시키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植民地를 갖고 있는 帝國主義列強間에는 그들의 政治力이나 經濟力이 항상 不變의이기 때문에 안정된 最終的인 劢力分割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不均等한 발전은 帝國主義列強間에 低開發世界에 대한 週期的인 再分配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列強間에 戰爭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로부터 레닌은 週期的인 世界戰爭이 資本主義의 帝國主義時代의 特징이라는 結論을 이끌어 내고 있다.

#### IV. 檢證——레닌의 『帝國主義論』의 誤謬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檢證해 본다. 檢證하는 것은 誤謬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레닌의 投資帝國主義論은 그 유명한 「利潤率低下의 傾向」, 「大衆窮乏化說」,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의 法則」에 근거하고 있다고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다. 만약 國內에서 利潤率이 低下하지도 않고 또 農民大衆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향상된 福祉國家로 발전할 수 있다면 레닌의 投資帝國主義論은

현실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만약 資本主義發展이 各 地域國家에서 均等하다면 기왕의 領土分割과 再分割 當時의 힘의 比率이 일치하지 않는 矛盾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므로 武力行使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利潤率低下의 傾向」, 「大衆窮乏化說」,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의 法則」을 절대적인 命題로 삼고 있기 때문에 列強間의 領土分割과 再分割過程에서 武力行使가 불가피하다는 投資帝國主義論을 그의 지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發展이 均等하다면 상호간에 龜裂이 덜 할 텐데 均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軋轢과 衡突과 戰爭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軋轢과 衡突과 戰爭으로 再分割된 것은 또 再分割이 연속됨으로 武力鬭爭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獨占資本主義段階는 항상 軋轢, 衡突, 武力鬭爭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社會主義革命만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東西對立에 관한 의도적인 政策的 고려가 앞선 즉 必然코 社會主義革命을 달성해야만 한다는 實踐的命題가 앞선 한 革命家로서의 戰略論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당초부터 의도한 바 있는 戰略論이기 때문에 이론바그가 말하는 科學的 解明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밖에 없다.

科學的 解明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國家 내부에서 民衆이 窮乏화할 것이라는 레닌의豫言도 잘못이었다(Strachey, 1956: Chap. 6과 7). 資本主義의 巨大한 寡占體는 必然的으로 賃金勞動者와 農民들의 對抗力を 위축시키기 때문에 民衆의 점진적인 富에로의 가능성을 레닌은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國家들은 資本主義가 成熟함에 따라 資本主義體制를 근본적으로 修正하는 한편 資本主義에 대한 民衆의 民主的 產業的 對抗力を 갖게 하고 所得의 分配를 再調整함으로써 賃金勞動者나 農民의 生活水準을 착실히 向上시켜 웃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레닌은 마르크스와 함께 資本主義體制가 가지고 온 經濟的 歸結을 誤判하였다고 할 것이다. 레닌은 議會主義의 民主主義體制를 資本家階級分配의 現代的 形태에 불과하다고 믿었지만 실은 先進資本主義國家 民衆의 생활수준을 착실히 上昇시켜준 것은 다름아닌 民主主義의 힘이 浸透됨으로써 가능했었던 것이다. 만약 오늘날 레닌이 살아있다면 大衆窮乏化說같은 것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장하는 「不均等發展의 法則」도 터무니없이捏造한

것은 아니나普遍法則으로서는妥當性이 없다고 스트레이치는 갈파한 바 있다(Strachey, 1956:117~118). 持續的인 사회적干渉에 의해서市場勢力이 조정되지 않는 한國家內部에서나外部에서나富益富貧益貧의不均等發展傾向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레닌의誤謬는不均等發展傾向에 대한制動裝置의效能성이나外國投資의減小趨勢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는大衆들의民主主義의浸透力에 힘입어 10분의 9에 달하는非資本家의消費가 적절히 지속적으로 향상되어國內消費가括目할 정도로 높아졌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다. 國內消費가 높아짐에 따라海外에投資하는資本의比率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1913년英國은國民貯蓄總額의半을海外에投資했으나오늘날이에상응할만한比率로海外投資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다. 예컨대 만약그比率로美國이1950年代에海外에投資하려면年間3百億달러를 했어야 할텐데 실제로는年間10億달러에서30億달러에불과하였다. 非資本家의國內消費比率이높아지고資本主義國家의海外投資比率이낮아졌다는 사실은不均等發展의法則이妥當하지못하다는 사실을 일측면에서방증한 것이다.

레닌의投資帝國主義論에 따르면,資本主義體制는 그것의崩壞를재촉하는利潤率低下의倾向에 따른內的矛盾을緩和하기 위한방도로서外國과貿易을 하며後進國으로資本을輸出한다는 것이다. 바꾸어말하면獨占段階에 도달한資本主義는生產力과消費力間의矛盾을 더욱커지게함으로그打開策으로서殖民地에서나從屬國에서榨取를하거나殖民地分割戰爭에 운命을건다는 것이다.

그러나레닌이看破한 일련의因果關係의全體構造를 움직이는최고의原動力으로서의 기본적經濟上의 경향, 특히殖民地分割戰爭의倾向이 역전될수 있는歷史的事例는얼마든지있었던 것이다.事例의하나로서스트레이치는그의著書『帝國主義의終焉(The End of Empire)』에서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南美에서는英國의公債所有者나企業家の利益을위협하는이집트에서와같은混亂이나남아프리카에서와같은非妥協의인태도는없었다. 南美에서도債務의不履行은있었으나北아프리카나South아프리카가併合될때까지그곳에서있었던바와같은순조로운investment를방해하는험난한障礙는없었다. 따라서軍艦을파견할만한필요가없었다. ……그러므로South

美에서는 英國의 支配가 생겨날 리 없었다. ……19世紀를 통하여 英國이 美國에 龐大한 投資를 한 경위를 살피건대 남부에 있는 일부 주에서 債務不履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全體로서는 鐵道를 주로 하는 公債의 利子가 아주 순조롭게 支拂되었고, 적어도 그것을 위한 誠實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Strachey, 1956:118). 이러한 이유로 밀미암아 英國은 南美의 일부나 北美를 併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스트레이치는 結論을 내리기를 “레닌이 先進資本主義에서 필요로 했다는 海外投資가 항상 또는 자동적으로 帝國主義的 摧取나 帝國主義的 戰爭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었고 海外投資가 債務國의 混亂狀態나 非妥協의 태도와 같은 障碍와 충돌했을 때만 전쟁과 병합이 발생했다”고 하였다(Strachey, 1956:119). 이러한 스트레이치의 견해는 主從國關係에서는 필연적으로 植民地分割戰爭이 야기된다는 레닌의 命題가 妥當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 卓見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볼 때 레닌의 投資帝國主義論은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어느 경향에 대한 診斷으로서는 일리가 없지도 않지만 普遍法則으로서는 妥當性이 없다고 할 것이다.

先進資本主義國家들과 世界資本主義體制內에서 존재하는 貧國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닌은 資本輸出論(投資帝國主義論)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19세기로부터 1950年 이후까지의 몇 가지 사실을 檢證하고 난 연후에 브라운(Brown)은 다음과 같은 括目할 만한 結論을 도출하고 있다.<sup>(3)</sup> “근래의 추세는 資本主義世界內에서의 富國과 貧國 사이에 隔差가

- (3) Michael Barratt Brown(1972:35~38)은 다음과 같이 檢證하였다. “1939년 이전에는 英國이 海外投資에서 利潤率을 유지시키는 役割을 했을련지는 몰라도 國內에서의 資本은 「過剩」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1920년 이전에는 英國에서는 눈에 띌 만한 獨占企業의 등장은 없었으면서도 1914년 이전의 世界資本의 대부분은 英國것이었다. 植民地開拓이나 鎮山에 대한 소규모의 投資에서 얻은 利益을 除外한다면 英國이 海外投資에서 얻은 수익은 결코 國內投資에서 얻은 수익보다 크게 높지는 않았다. 1914년 이전과 2次大戰에 이르기까지 英國의 海外投資의 대부분은 植民地가 아닌 기존 獨立國家들에 대한 것이었다. 1945년 이후 英국이나 美國이 後進海外領土에 대한 投資로부터 얻은 수익은 資本流出量을 일 반적으로 초과하기는 했지만 相對의 중요성은 감소되었고, 1945년 이후 英美의 資本輸出은 獨占企業들이 海外로膨脹하면서 야기된 것이 主宗이었으나 獨占資本의 대부분은 貧國이나 後進國이 아니라 獨占企業끼리 서로 상대방의 市場에 대한 投資였던 것이다. 國際交易은 國際投資와 마찬가지로 先進產業國家들끼리만 점점 집중되어 왔고 後進國地域은 國際의인 資本商品과 交易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跛外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M.B. Brown의 檢證에 따르면 레닌의 獨점자본론이나 投資帝國主義論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英帝國主義를 統計的으로 면밀히 檢證하고 난 뒤에 레닌의 投資帝國主義論의 誤謬를 지적한 參考文獻으로서는 John Strachey(1956)를 參考하기 바람.

증가되고 있다는 설명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추세를 야기시킨 것은(레닌이 말한 것처럼) 先進國들의 對 後進國 資本輸出이 아니고 오히려 先進國들이 後進國에 投下한 기존의 資本을 빼내어 갔기 때문인 것이다. 즉 貧國과 富國의 격차의 증대는(레닌이 말한 것처럼) 資本輸出이 아니라 多國籍企業들의 활동 등, 다른 요인으로 새로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低開發國에 대한 先進國의 持續的인 經濟力의 행사는 이제는 資本輸出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게 되어 마르크시스트들도 오늘날 새로운 설명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Brown, 1972:38). 이러한 브라운의 指摘은 正鵠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마르크스·레닌理論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事例 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 네오·마르크시스트의 說明(理論)이 雨後竹筍처럼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의 自明한 誤謬가 네오·마르크시스트理論이 나오게 되는 所以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레닌의 金融資本과 關稅에 관한 見解를 檢證해 본다.

『帝國主義論』의 第3章 「金融資本과 金融寡頭制」에서 레닌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金融資本의 概念은 安定스럽지 못하다는 감이 듈다. 레닌은 “金融資本이란 銀行資本이 產業資本을 지배하는 바의 資本”이라고 규정하는 힐퍼딩의 정의는 不完全하다고 하면서 “生產의 集中으로부터 생기는 獨占, 銀行과 產業과의 融合 및 憃着이 金融資本을 발생케 한 歷史이며 內容”이라고 했다 (Lenin, 1950:78).

金融資本은 獨占과 銀行이 憃着되어 생겼다는 레닌의 說은 株式會社制度가 過少評價된 일면이 있다. 우선 資本主義體制에서 株式會社制度를 過少評價할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帝國主義論』第3章 후반부에서는 參與制度, 證券發行業務, 有價證券統計 등을 주로 들어 사실상 金融資本을 有價證券이라고 함으로써 金融資本에 대한 그의 特유한 定義와는 다른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4章 이후에서도 獨占과 銀行의 憃着이 金融資本이라는 說보다, 有價證券이 金融資本이라는 說을 훨씬 자주 거론하고 있다. 결국 레닌은 金融資本의 概念에 대한 시종여일하고 確固한 규정을 하지 못하여 安定스럽지 못하고, 힐퍼딩에 비하여 오히려 後退한 감이 없지도 않다.

金融資本과 帝國主義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帝國主義의 中心課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帝國

主義論』에서는 金融資本과 帝國主義의 관계가 資本輸出과 國際的 카르텔을 媒介로 하여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설명은 資本輸出(投資帝國主義)을 유일한 分析道具로 하여 帝國主義를 採掘해 보려는 방법을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輸出을 유일한 分析道具로 삼았다는 것은『帝國主義論』에서 사실상 關稅論에 대한 論議가 별로 없었다는 것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레닌이 先行하여 힐퍼딩이 『金融資本論』에서 金融資本에 대한 면밀한 分析을 한 것을 생각하면 奇異한 감이 들기도 한다.

證券投資를 代表로 하는 英國資本市場에서는 직접 企業을 지배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政治的支配를 요구하지 않는 資本輸出을 한 데 반하여 直接投資를 대표로 하는 獨逸獨占體는 企業을 직접 지배하려고 政治的支配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資本輸出을 하였는데, 이兩者를 구별하지 않고 同一範疇로 취급하고 있음을『帝國主義論』第4章에서 접할 수 있다. 레닌은 힐퍼딩이 중점적으로 분석한 獨逸이나 美國의 事態와 흡수이 중점적으로 분석한 英國의 事態를 구별하지 않고 一般論을 평고 있는데 이 점은 資本輸出論에서도 國際카르텔論에서도 마찬가지다. 獨逸의 事態와 英國의 事態를 原理的인(自由競爭—集中—獨占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구별하지 않고 世界를 烏瞰하려는 레닌의 방법으로서는 關稅란 部分의in 현상에 불과하므로 무시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獨占體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關稅保護를 하는 國內 및 植民地市場과, 그것이 없어서 덤핑에 의지하는 外國市場과는 自由競爭—集中—獨占이라는 틀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다른 것이다. 英國에서 「純粹」한 獨占이 분명히 結晶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은 關稅의 缺如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關稅는 資本輸出과 함께 金融資本과 帝國主義의 관계를 明示하는 중요한 媒介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帝國主義論』에서 關稅論을 별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關稅를 일종의 政策範疇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關稅여하에 따라 獨占이나 帝國主義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關稅는 일종의 政策的인 것이므로 「段階로서의 帝國主義論」에 흡이 갈 것이기 때문에 關稅論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帝國主義論」의 要締가 「政策으로서의 帝國主義論」을 거부하고 「段階로서의 帝國主義論」을 고집하려는 것이 있으므로 政策範疇에 속하는 關稅論을 회피한 것은 레닌으로서는 부득이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論理를 위한 論理가 歷史的 檢證(英

國과 獨逸의 判異한 事態)을 뒤엎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는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인 「獨占」, 「寄生性과 腐敗」, 「死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檢證을 해 본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로서 經濟的으로는 「獨占」, 政治社會的으로는 「寄生性과 腐敗」, 歷史的으로는 「死滅」을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規定은 각기 다른 면에서 설명되는 다른 레벨의 것인지, 아니면 같은 레벨의 것인지, 獨占에다가 腐敗가 겹쳐 死滅한다는 것인지, 獨占은 곧 腐敗임으로 死滅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帝國主義論』第10章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冒頭에서는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經濟的 本質로서의 帝國主義는 獨占資本主義다. 그 자체로서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는 규정된다. 왜냐하면 自由競爭의 기반으로부터 또는 다른 아닌 自由競爭속에서 성장하는 獨占은 資本主義의 制度로부터 보다 高次元의 社會經濟秩序(社會主義體制를 말함)에 이르는 過渡期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獨占은 매우 高度의 發展段階에 있는 生產의 集中으로부터 발생한다. ……둘째로 獨占은 가장 중요한 原資材 특히 資本主義社會에서 기본적이고 매우 카르텔化된 產業 즉 石炭과 製鐵業의 占有를 강화하였다. ……셋째로 獨占은 銀行으로부터 발생한다. ……넷째로 獨占은 植民地政策으로부터 발생한다. ……獨占資本主義가 資本主義의 여러가지 矛盾을 얼마나 尖銳化했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生活費의 膨貴와 카르텔의 橫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矛盾의 尖銳化는 世界金融資本이 최후로 승리한 때부터 시작된 歷史的 過渡期의 가장 강력한 推進力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Lenin, 1950:198~200). 이 文脈으로 보아서는 「獨占」은 곧 「死滅」에 직결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腐敗와 死滅을 別途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腐敗」와 「死滅」이 『帝國主義論』에서는 엄연히 「獨占」과 다른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아닌 人爲的으로 腐敗를 除去해야만 한다는 實踐的 社會主義革命論을 주장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死滅에 관한 規定의 설명으로서 레닌은 “우리를 目前에 證據로서 나타난 것은 生產의 社會化였지 결코 단순한 (獨占과 腐敗와 死滅의) 運動은 아니었고 私經濟의 및 私有者的 諸關係는 별씨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外皮여서 그 外皮가 人爲的인 수단으로 除去될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腐敗는

불가피한 것으로 되며 또 비교적 장기간 이 腐敗狀態가 계속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除去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Lenin, 1950:205). 이것은 獨占은 곧 死滅이라기 보다 腐敗는 인위적인 수단으로 除去되어야만 한다는 레닌의 實踐論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레닌은 어떤 경우에는 死滅에 관한 必然論을 주장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人爲的인 實踐論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獨占」, 「寄生性과 腐敗」, 「死滅」規定에 대한 상관관계의 서술이 일관성있게 整理되어 있지 않아 그 相互連動性을 레닌은 暫昧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必然的인 自動崩壊論인지 人爲의인 수단으로 腐敗를 除去해야만 한다는 實踐的 革命論인지 그 處理가 매우 不澈底하고 不完全하기만 하다.

#### 〈參 考 文 獻〉

- Arrighi, Giovani  
 1978 *The Geometry of Imperialism*, London, NLB.
- Bodelsen, C.A.  
 1960 *Studies in Mid Victorian Imperialism*, London.
- Brown, Michael Barratt  
 1972 *Essays on Imperialism*, Spokesman Press.
- Cohen, Benjamin J.  
 1973 *The Question of Imperi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Dominance and Dependence*, New York, Basic Books.
- Hobson, J.A.  
 1954 *Imperialism: A Stud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odgart, A.  
 1977 *The Economics of European Imperialism*, London, Edward.
- Koebner, R. and H.D. Schmidt  
 1964 *Imperialism: The Story and Significance of a Political World, 1840~1960*.
- Lenin, Vladimir I.  
 1950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Moscow, Foreign Publishing House.
- 1972a “Left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31, Moscow, Progress Publications: 17~118.
- 1972b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ought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Moscow, Progress Publications: 381~492.
- 1972c, “Two Tactics of Social Democracy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Lenin,

- Collected Works, Vol. 9, Moscow, Progress Publications: 15~140.
- 1972d "What Is to Be Done?",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5, Moscow, Progress Publications: 347~529.
- Luxembourg, Rosa
- 1951 *Accumulation of Capital*, ed. by Joan Robinson, London,
- Nettle, J.P.
- 1966 *Rosa Luxembourg*, Vol. 2, London,
- Strachey, John
- 1956 *The End of Empire*, New York, Praeger.